

공개된 정보

2018년 4월 17일 저녁 7시경, 내과 전문의 이찬호가 진 병원의 신관 1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찬호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스타 의사로 떠오르던 중이었고 원장의 막내딸인 김가원과의 정혼으로 차기 원장 내정 소문까지 있었다. 신관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당일에는 개인 짐 정리와 병실 내부 및 기기 점검을 위해 병원 관계자 몇 명만 들어가 있었다. 이찬호가 숨진 장소는 신관 13층의 격리병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입가에는 타액이 남아있고 옷매무새는 상당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격투의 흔적은 없다. CCTV는 마침 6시부터 7시까지 점검을 위해 꺼져 있었기에 그사이에 누가 격리병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장에 있던 인원 중 알리바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당신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어 당신의 무죄를 밝히고 범인을 찾거나, 혹은 당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다른 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야 한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담당 구역 점검 시작. CCTV 꺼짐
	최혜민, 13층 간호사실 점검
	김가원, 14층 마취과 점검
	김득진, 14층 원장실 점검
오후 6시 30분	최혜민, 13층 휴게실 잠깐 들름
오후 6시 55분	최민성, 병원 도착
오후 7시	최혜민, 13층 격리병실에서 최초로 시체 발견
오후 7시 1분	최민성, 비명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4분	김득진, 최혜민으로부터 전화 받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6분	김가원, 응성거리는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김득진(62)



김득진(62)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4년 전 은폐한 의료사고 문제로 이찬호에게 협박받았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진 병원의 병원장이자, 이찬호가 약혼을 앞두고 있었던 김가원의 친아버지이다. 당신은 사실 죽기 직전의 이찬호와 이 격리병실에서 만났다. 이찬호는 미래의 사위이자 차기 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라, 이찬호가 전화로 당신을 불러냈을 때 당신은 별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찬호가 용건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찬호가 꺼낸 말은, "JD제약을 정리하고 납품업체 선정권을 넘겨달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JD제약은 UH제약과 함께 제약업체를 양분하는 거대 제약회사다. 진 병원은 JD제약과 약품에 대한 독점 납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JD제약은 고가의 가격으로 약품을 팔아 이익을 챙겼고 당신은 그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게다가 사실 당신은 JD제약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 병원 재단과 친인척들, 진 병원의 임원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합치면 40%에 달한다. 당신은 이 병원 재단을 통해 사실상 40%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었고, 이 카르텔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JD제약에 대한 당신의 지분은 며칠 전 딸인 김가원에게 넘겼고, 병원 재단 이사장 자리도 넘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다. 지금 JD제약을 정리하는 것은 딸을 배신하는 셈이다. 이찬호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JD제약을 정리하라고 종용하면서 이찬호가 내민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다.

2014년은 유난히 원내 환자의 사망이 많았다. 이찬호가 내민 서류도 당시 환자의 파일이었다. 환자의 이름은 최운재, 당시 12세. 난치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4년 전 당신은 JD제약의 신약, JD-PRX의 테스트를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했다. 문제는 너무 많은 횃수를 빨리 해치우려다 보니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환자도 그랬다. 당시 이 환자의 담당 의사는 이찬호. 당신은 이찬호에게 사망진단서 내용을 '아주 잘' 작성할 것을 메모까지 해가며 지시했다. 파일에는 그때의 메모가 그대로 붙어있었다. 지금 이찬호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하다. 신약 테스트에 의한 의료사고를 은폐한 것에 대해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

"당장은 어려우니 좀 시간을 주게" 정도로 대답하고, 당신은 파일을 받아 쥐고 격리병실을 나와 원장실로 돌아갔다. 격리병실은 13층, 원장실은 14층이다. 최근 무릎이 많이 안 좋았기에 1층이라도 당신은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다. 14층에서 내리니, 딸인 김가원이 원장실을 노크하고 있었다. 김가원에게 용건을 물으니 원장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하고 찾아왔다고 한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았지만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신은 김가원을 둘러보내고, 원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파일을 올려두고 의자에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당신은, 한참 후 밖에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당신은 환자 파일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 파쇄기에 집어넣었다.

파쇄기에서 갈려 나가던 파일은 중간쯤에서 멈췄다. 아무래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다. 당신은 파쇄기에 걸린 종이를 빼내려고 끽끽거리다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기 위해 테이블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손수건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다. 당신의 모교인 유성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기념으로 제작한 손수건. 동문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당신은 그 손수건을 특별히 잘 간직해왔다. 당신은 파쇄기를 내버려 두고 손수건을 찾기 위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최혜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당신은 무언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당신은,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열려있는 격리병실 안. 격리병실은 당신이 경비업체에 지시해 보안 시스템을 꺼두었다. 시스템을 꺼둔 이유는 이찬호가 긴히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 평소에는 출입이 한정되어 있지만, 6시부터는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다.

* 추가 규칙: 당신은 이찬호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도 말할 수 없다.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에게 추궁당하거나 이미 들켰다 해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대별 실제 움직임

오후 6시 10분	격리병실 입장
오후 6시 29분	격리병실 퇴장
오후 6시 30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14층 도착. 원장실에 들어가려던 김가원을 마주침
오후 6시 31분	"혼자 있고 싶다"라며 원장실에 들어감
오후 6시 37분	밖에서 엘리베이터 소리 들림
오후 6시 40분	파쇄기 작동했으나 금세 멈춤. 파쇄기에 걸린 종이를 빼내려 함
오후 6시 45분	이마의 땀을 닦으려다가 손수건이 사라진 사실 깨달음
오후 7시 2분	최혜민의 전화 걸려옴
오후 7시 4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13층 이동. 격리병실 도착